



## 묵은 것과 새로운 것

낡은 것과 새것이 범벅이 되어 갈피를 못잡게 되면 그 또한 혼란과 무질서를 빚어내기 쉽다. 낡은 것들 가운데서도 버릴 것은 아낌없이 버리고.....

宋志英 / 작가 · KBS이사장

세월의 흐름에서 새로움을 말하는 것은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문턱인 것이다.

생명의 순간 순간이 알차고 아무질수록 새로움으로 안겨지는 희망은 한 걸음 빨리 다가선다.

지나온 날들에 대하여 부질없는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면 언제나 고달픈 제자리 걸음일 뿐 진보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안개 속을 허위적거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삶의 길에서는 한 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채, 서 있는 자리에서 머뭇거림이 많지 않은가.

하기는, 인류의 역사가 생긴 이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간들이 언덕의 풀잎처럼 돌아나

고, 풀잎의 이슬처럼 스러지고 하는 가운데 역사는 쌓여가고, 쌓여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낙엽처럼 짓밟히고 썩어간 수효가 그 얼마이더냐. 강변의 모래알은 셀 수 있어도 이름도 성도 모르게 낙엽더미에 쌓이고 썩어간 잠초같은 인간의 수효는 아무도 그 수효를 알아낼 수 없지 않는가.

그 모두가 생명의 순간을 헛되이 보내는 가운데 눈앞의 현실에 집착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었고, 또는 스스로의 삶의 의지를 불태워 용기있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는 느낌이 새웃을 갈아 입고 건성 만나는 얼굴마다 서로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말로만 넘겨버리고, 진정 새로움의 자세가 몸과 마음에 가다듬어지지 않았다거나, 오늘보다 내일로 향한 새로운

포부나 결의가 굳어져 있지 못하다면 새로움의 의미는 없다.

언제나 다름없는 지붕 밑에서 아침 저녁 대하는 그 얼굴들과 어제 그제도 해오던 그일을 그대로 반복하는 터에, 세월을 토막지어 묵었다느니 새롭다느니 하는 뜻이 무엇일까. 새롭다는 뜻은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보다 더 알차도록 확실한 자세를 가다듬는 데서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허, 말이야 쉽지만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는 게 어디 말 몇 마디 하듯 쉬운 것이냐고 빈정대기도 할 테지. 물론 진정 새로움을 찾는다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세상일 크고 작고를 따질 것없이 땅 짚고 헤엄치듯이 쉽게 이뤄지는 것이란 없는게 아닌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뜻은, 적어도 하루 이틀 세배를 주고 받고 소주를 마시고 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다르게 오늘보다도 내일에 품어보는 기대와 희망이 일년 열 두달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다져간다는 의지의 불꽃만은 태워야 할 것을 다짐하고 싶다.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묵은 것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장자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한 대목 있다.

임금이 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마루 앞 마당에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있다가 임금께 물었다. 읽고 있는 것이 무어나고. 임금은 옛성인들의 훌륭한 말씀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니까 목수는 신통찮게 여기는 투로, 『옛 사

람들의 찌꺼기군요』하였다는 것이다.

성인의 글도 알맹이가 아닌 찌꺼기로 비웃어 버리는 목수의 생각이 옳은지 어쩐지는 모르나 어렴풋 생각컨대 인간이 찾아야 할 참된 것은 항상 새로운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닐는지. 물론 장자의근본 가르침은 인간 본연으로 타고난 무위자연의 본질을 안으로 안으로만 파고드는 데서 새로운 경지를 뚫게 되는 것을 깨닫도록 할 이겠지만.

그런데 새로움의 자세를 추구함에 있어서 묵은 것, 낡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잘못을 가져오게 될 위험도 없지 않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역사란 곧 어제의 자취인 동시에 이미 묵어버리고 낡아버린 것됨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밝아온 시간의 자취에서 묵고 낡은 것이 없는 오늘이란 있을 수 없다. 슬기롭고 의젓한 자취들은 묵은 것일수록 보배롭고 세월과 더불어 낡을 것일수록 자랑거리도 된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새로움의 참뜻을 새겨 미래에 걸치는 희망이 열매를 맺도록 하자면 새로움이란 옛것을 버리는 데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고 낡은 것에서 그 슬기로운과 자랑

거리를 다시 찾아내어 새롭게 갈고 닦고 꾸미는 가운데 진정한 새로움을 찾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나 몸의 움직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는 무턱대고 새로운 것만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묵고 낡은 것만이 값진 것이라 하여 그에 얽매어 한 걸음도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자연의 질서처럼 저절로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노력하여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알맞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흔히 말하는 의식개혁은 바로 그러한 데서 길을 찾자는 것이다. 이게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의 논리에서 벗어나 차분히 앞뒤를 가려 어느 길이 가장 새롭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살펴 화합의 광장으로 모이도록 함이 옳지 않은가.

나만이 옳다. 나 아니면 안된다. 네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는 따위의 고집 불통이나 독선적인 행위로서는 새로움은 커녕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낡은 테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빈축이나 조롱을 사기 알맞을 것이다.

그리고 냉소나 방관자적인 태도로 턱을 치켜 세우거나 눈을 흘기는 따위도 역시 새로움을 찾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남들은 땀 흘려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팔짱을 끼고 흥얼대는 행위는 나무가지에서 이슬이나 받아 먹고 산다는 매미만도 못한 미물들이 아닐는지.

또 하나 팽배해 넘치고 있는 물질만능의 생각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진정 새로움의 날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하기야 돈이면 귀신도 부릴수 있는 속담도 있지만,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모든 것을 깔아뭉개거나 해결해 버리려는 생각처럼 인간을 좀 먹고 사회를 오염시키는 일도 없다. 항상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아는 데서 새로운 희망의 싹은 터오르는 것이다.

낡은 것과 새것이 범벅이 되어 갈피를 못잡게 되면 그 또한 혼란과 무질서를 빚어내기 쉽다. 낡은 것들 가운데서도 버릴 것은 아낌없이 버리고 살려야 할 것은 되살려가고, 새로운 것 가운데서도 무턱대고 흥내내며 본받을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선택의 지혜를 한껏 발휘해야 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정치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옛 조상들 못지않게 민족의 굳건한 의지와 밝은 지성과 굽힘 없는 용기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길목에 서 있다. 우리 모두 진정 새로움의 나날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지 않으려나.

●알림 : 이번호에도 연재되려던 취미생활코너는 지면관계로 쉬게 되었습니다.